

“예술가 성장하도록 미술생태계 구축” 되새겨야

간판 아트페어 ‘키아프·프리즈 서울 2025’ 리뷰

“미술한류 전진기지” 기대...광주와는 아직 거리 먼 이야기 을 키아프에 지역출신 작가 10여명 그쳐 갤러리는 1곳 불과 ‘키아프만 패스’ 관람객 감소 vs 향후 동반성장 가능’ 엇갈려

“키아프는 한국미술계의 가장 뜨거운 현장입니다. 그 현장의 열기가 국내외로 넓게 퍼져 나가기 기대합니다. 이에 미술한류의 전진기지. 2025 키아프 개막을 두 손 모아 축하합니다.”
이는 윤범모 (재)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1층 A·B홀 및 그랜드볼룸에서 20개국 175갤러리가 참가한 가운데 개막된 국내 최대이자 간판 아트페어 ‘키아프 서울 2025’ (Kiaf SEOUL 2025, 이하 키아프) 개막에 앞서 밝힌 축하멘트다.
이번 키아프는 예년과 같이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

려진 아트페어인 ‘프리즈 서울 2025’ (이하 프리즈)와 함께 진행 중이다. 프리즈는 30개국 120여개 갤러리가 참가한 가운데 3일부터 6일까지 키아프 전시장 바로 위인 3층 C·D홀에서 열렸다.
먼저 ‘공진’ (Resonance)을 주제로 진행 중인 키아프를 5일 광주시립미술관 일행들과 함께 둘러봤다. 입장료가 8만원에 달해 사람들에게 부담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미술품을 판매해야 할 주최측 입장에서는 실제 작품을 매입할 VIP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올해 키아프에 참여한 중진 작가 K씨의 말대로 “그림을 살 수 있는 사람만 와서 봐라”라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테면 작품을 매입할 수 없는 사람보다는 키아프가 꼭 필요한 사람들과 와서 관람할 것을 염으로. 양으로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이 든 것도 사실이다.
키아프 전시공간은 올해 다소 할렘한 느낌을 준다. 그 이면에는 기존 부스



국내외 미술시장 동향제인 간판 아트페어 ‘키아프 서울 2025’와 ‘프리즈 서울 2025’가 3일 동시 개막됐다. 코엑스 1층 A·B홀에서 진행 중인 ‘키아프 서울 2025’를 방문한 관람객들.

가 작으며 뻣뻣한 공간 구성이었으나 올해 부스를 조금 제한을 뒤 쾌적한 환경을 구축,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지역 출신 작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키아프가 프리즈와 함께 열리면서 동반 상승했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여전히 충돌했다. 이는 실제 프리즈만 보고간다는 의견에서 입증되고도 남는다. K 작가는 “진짜 부자들은 키아프를 들르지 않고 프리즈만 보고 간다”고 들려줬다.
이는 투자가치의 변화 때문으로 읽힌다. 국내 그림보다는 해외 작품에서 더 투자가치를 느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입장료가 비싸기에 티켓 구하기도 쉽지 않은 등 불편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적어야 될 복잡하니까 VIP들 관람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도 들려왔다.
K 작가는 키아프와 프리즈는 프리즈가 열린 첫해만 두 군데 모두 관람인파가 몰렸지만 그 이후에는 매년 관람 인파가 줄어드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K 작가는 프리즈로 인해 키아프의 인지

도와 경쟁력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프리즈가 그동안 쌓아온 명성이 있기에 키아프 역시 그에 준하는 구조를 갖춰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바로 비교 경쟁이 되기에 해외 기준에 맞춰가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다행인 점은 지난 3일 김혜경 여사가 전시장에 다녀가면서 다시 관심이 부각됐다고 해 추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올해 4회를 맞은 ‘프리즈’에서는 고 박서보 화백의 대표작 ‘묘법’ 연작과 LG 올레드 TV로 재해석한 미디어아트와 함께 전시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LG 올레드 TV는 완벽한 블랙의 압도적 깊이감과 디테일로 실물 그대로의 색감 표현해 찬사를 받고 있다. 특히 검제 정선의 작품은 대자 범주에 들지 않았어도 압도적 관심사로 떠올랐다는 반응이다.
전시장이 미술시장이지만 작품에 대한 경중을 따져볼 수 있는 것들이 부재해 전시장만 구경하고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프리즈는 낚고리도 국내 작가들의 미술시장인 키아프에 광주작가들의 참여가 극도로 부진한 것

로 나타나 아쉬움을 더했다. 우선 눈에 띄는 작가들로 직한 허담재 작가(이화익갤러리)를 비롯해 김 25 작가(유미·금산갤러리), 미디어아티스트 이이 남 작가(아트파크), 하루K 작가(갤러리 팔초), 정성준 작가(전남대 교수·아틀리에 아키), 고차분 작가(갤러리 다산) 등 10여명에 그쳤다. 이는 광주상업미술지형이 얼마나 척박한가를 입증한 사례다. 다년간 광주작가들의 참여를 이끌었던 나인갤러리가 유일하게 참여했다. 하지만 나인갤러리 역시 몇 년전부터 광주작가 아닌, 소속 작가인 우병출 작가의 작품으로 키아프에 참여하고 있다.
K 작가는 “지역작가들이 꾸준히 성장하도록 상업 미술생태계가 갖춰져 있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다. 몇몇 작가들만 각계각파식으로 키아프에 나가고 있다”면서 “갤러리들이 작가들을 꾸준히 선보여야 한다. 그리고 프로모션을 해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화기관들이 상업 생태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프리즈 서울 2025’ 전경

광주대 문예창작과 졸업생·교수 작품집 잇단 출간

최근 네달 새 이꽃님·최현주·이리아 동문, 이기호 교수 등 작품 발표

광주대 문예창작과가 교수와 졸업생들의 잇따른 작품 발표로 ‘풍성한 수확의 해’를 보내고 있다.
청소년 소설 작가라 불리는 이꽃님 동문은 지난 8월 ‘내가 없던 어느 밤에’를 발표했다. 장르적 재미와 동시에 청소년의 현실도 직시하는 작가는 상실과 죄책감을 안은 아이들이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회복해 가는 과정을 그려냈다. 책에서 멀어진 청소년들도 다시 소설 앞으로 불러들이는 작가

의 역량은 이번에도 독자층을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어 6월에는 최현주 작가의 ‘흔들리는 우주에서’가 출간됐다. SF·호러 등 다양한 장르의 청소년 소설을 활발하게 발표하면서 동시에 한국문화 예술위원회의 지역예술 도약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독자들과의 만남 또한 넓혀가고 있다.

이리아 작가는 지난 5월 청소년 소설 ‘파이트’를 출간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웃과 함께 성장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았다. ‘파이트’는 격투기 선수라는 꿈을 찾아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온 주인공 하람이의 소외와 희망을 지방 소도시를 배경으로 펼쳐낸 작품으로 청소년 소설의 공간을 확장한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기호 교수(소설가) 역시 지난 7월 장편소설 ‘명량한 이시봉의 짧고 투쟁 없는 삶’을 출간했다. ‘사과는 잘해요’(2009), ‘차남들의 세계사’(2014) 이후 11년 만에 선보인 장편으로,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인 개를 중심으로 인간과 비인간 존재의 관계를 작가 특유의 유머러스하면서도 따뜻한 필체로 풀어냈다.
이 소설은 문학동네에 연재될 당시, 독자층의 눈길을 끌며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출간을 기다려온 독자들이 많았던 만큼 독후 감상평과 리뷰

행진도 계속되고 있다.
광주대 문예창작과는 이번 연이은 출간 성과를 통해 교수와 졸업생이 함께 학문적·문학적 성과를 거두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문단, 독자들과 소통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공인디자인전문회사

회사 홍보를 고민하십니까? 다큐디자인으로 오십시오



다큐디자인은

- 사보, 사사, 회보, 지명원 등 회사 홍보를 위한 기획, 제작 전문 회사입니다
- 기획부터 취재, 원고작성, 사진촬영, 출판까지 One-stop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일을 하실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 사보, 사사, 단체사, 회보, 지명원 등 기록물 간행을 원하시는 분
- 자서전, 회고록, 시집, 수필집, 소설, 사진집 등 단행본 출판을 원하시는 분



DOCUdesign
다큐디자인 DOCU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25번길 6(금동) T. 062)529-7107 M. 010. 8345. 0103